

KIA, 수비 실책 줄여야 가을잔치 간다

3연패하며 5위 사수도 불안
삼성 상대 분위기 반전 노력

흔들리는 수비에 5위도 흔들린다.
4연승으로 불을 붙였던 KIA 타이거즈의 4위 희망이 3연패와 함께 차갑게 식었다. LG와의 최종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4위는 이제 꿈이 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위한 마지막 한 자리인 5위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력한 4위 후보였던 SK가 시즌 막바지 9연패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손발이 꼬인 SK가 연패로 내리막을 타면서 '가을잔치' 판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위 후보로 어필을 하던 KIA가 추락하면서 SK가 마지막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가 없던 두 팀은 두 경기 차에서 5위와 6위를 유지하고 있다.

KIA가 남은 5경기에서 3승 이상을 거두면 SK가 남은 4경기를 4전 전승으로 끝내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2승 이하의 성적을 내면 SK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2승3패의 경우 SK가 4승을 하면 승률에서 KIA를 앞서게 된다. 1승4패의 경우 3승, 5전 전패의 경우 2승이 SK에게 필요하다.

문제는 수비다.
지난해 빈약한 화력에도 막강한 방패를 앞세워 5강 싸움을 해왔던 KIA지만 이번 가을 양상은 다르다. 지난해에 비해 장이 한결 매서워졌지만 방패가 부실하다. 최근 3연패의 중심에는 크고 작은 실책이 있다.
지난 23일 NC전 유격수 박찬호의 실수



지난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 경기 7회초 1사에서 LG 유강남의 타구를 KIA 우익수 신종길이 놓치고 있다.

로 촉발된 위기로 KIA는 이범호의 만루 홈런에도 패배의 쓴 잔을 들었다. 25일 kt전에서는 2루수 김주형의 뒤로 빠져 버린 공에 분위기가 섰다. 27일 LG전의 흐름을 기울인 것은 우익수 신종길의 허무한 포구였다. 복귀 전에 나선 유격수 김선빈의 판단 미스까지 겹치면서 4강 싸움은 사실상 LG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될 절제절명의 순간에 빈 틈을 노출한 '자멸 수비'가 계속됐다. 투수들도 야수진의 실책에 함께 흔들리면서 아쉬운 패배가 3연패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4번 타자 나지완과 함께 김선빈·안치홍이 타선을 채우면서 화력은 강화됐다. 하지만 일단 지키고 봐야한다. KIA가 실수

연발을 하는 동안 상대는 호수비로 공격의 흐름을 끊으며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갔다.
하루 휴식을 취한 KIA 선수단은 29일 오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한 뒤 30일 삼성과의 경기가 예정된 대구로 향했다. 3연패를 안고 원정길에 오른 KIA가 실수 없는 경기로 5위 선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한테 홈런 맞았어요”

애리조나 교육리그 KIA 박상욱 ‘특별한 경험’

홈런을 맞고도 싱글방글 웃음이 터진 투수가 있다. 애리조나 교육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KIA 투수 박상욱의 이야기다.

사연은 이렇다. 박상욱은 29일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에서 열린 교육리그에서 KIA·SK 연합팀의 선발로 나섰다. 이날 박상욱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타자가 있었다. 그는 왼쪽 타석에 선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였다.

지난 8월 오를랜드와의 경기에서 공에 맞아 왼팔 골절상을 당했던 추신수는 이날 교육리그 경기에 출전해 컨디션 점검했다. 결과는 추신수의 완승이었다. 3번의 만남에서 박상욱은 1피홈런 1볼넷 1방볼을 기록했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박상욱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박상욱은 “야구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며 추신수를 상대한 소감을 밝혔다.
박상욱은 “확실히 메이저리그 선수다웠다. 파워도 좋고 앞에서 공을 때리는 게 훌륭했다. 홈런 맞은 공이 낮게 갔는데 그걸 넘겼다”며 “무엇보다 선수단이 인상적이었다. 공을 잘 굴러내고 자기 공을 때리는 느낌이였다. 최대한 공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미국 타자들과 달리 차분하게 타석에서 승부를 하는 추신수를 보면서 박상욱은 많은 것을 배웠다. 홈런은 맞았지만 보약 같은 홈런이 된 셈이다.

박상욱은 교육리그에서 아쉬움 가득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 도약을 하겠다는 각오다. 박상욱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2014 2차 2라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하지만 아직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이지 못했다. 군입대 계획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 시즌 공익근무요원으로 군입대를 준비했던 박상욱은 자리가 나지 않으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 마음을 비우고 마운드에 선 그에게 1군 데뷔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다.

박상욱은 “올 시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얻은 게 많다. 2년 전에도 교육리그에 왔었는데 그때와 달리 공도 좋고 자신감도 생겼다. 많이 배우고 가서 내년 시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잘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새 출발을 예고한 그는 이름도 바꿨다. 내년 시즌에는 박상욱이 아닌 박서준이라는 새 이름으로 마운드에 오른다.

사연 많은 2016시즌을 뒤로한 박상욱이 애리조나에서 새 출발을 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수, 9회 대타 역전포…가을야구 희망 살렸다



김현수(가운데)는 29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방문경기에서 1-2로 뒤진 9회초 대타로 타석에 나서 1사 2루에서 상대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의 시속 154km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 아치를 그렸다. 3-2로 경기가 끝난 뒤 김현수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2경기 연속 홈런 ‘시즌 6호’

볼티모어 와일드카드 2위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가 9회초 대타로 등장에 극적인 역전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무리 오승환은 시즌 100탈삼진을 채웠다.
김현수는 29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방문경기에서 1-2로 뒤진 9회초 대타로 타석에 나서 1사 2루에서 상대 마무리 로베르토에게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 아치를 그렸다.

1-2로 뒤진 9회초 1사 1사에서 볼티모어는 놀란 레이몰드 타석에 김현수를 내보내며 반전을 노렸다. 대주자 마이클 본이 2루를 홈쳐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다. 김현수는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4km의 빠른 공을 받아쳐 우중월 투런포를 쏘았다. 26일 애리조나전에서 결승 홈런을 친 김현수는 2경기 연속 대포를 쏘았다. 시즌 6호 홈런이자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첫 대타 홈런이다.

1타수 1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한 김현수의 타율은 0.302에서 0.305로 올랐다. 타점도 21개로 늘었다. 볼티모어는 김현수의 한 방으로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순위 2위인 볼티모어는 1위 토론토와 격차를 1게임으로 줄였다.

오승환은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서 1-2로 뒤진 8회초 1사 3루에서 구원 등판해 1.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사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첫 타자 스티브 셸스키를 볼 카운트 2B-2S에서 6구째 슬라이더(약 142km)로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토니 렌다를 맞아서는 역시 볼 카운트 2B-2S에서 142km짜리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고 불을 껐다. 오승환의 시즌 100번째 탈삼진이었다.

9회에도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라몬 카브레라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중견수 뜬공 처리했다. 이어 이반 데 헤수스 주니어의 중전 안타성 타구 때 오승환이 반사적으로 글러브를 댔다. 글러브에 굴절된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오승환은 아웃카운트 2개를 손쉽게 올렸다.

이어 오승환은 호세 페라자에게 투수 강습 안타를 내준 뒤 허벅지 통증을 느껴 교체됐다. 통증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인트루이스는 1-2로 패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